

대학 공동 설립자 문상익 박사 콩코디아 교육의 미래에 대해

문상익 박사 겸 목사는 콩코디아 대학 어바인의 공동설립자이자 학장이며 교수이자 대학의 수많은 유학생들의 멘토이자 후원자입니다. 박사는 이를 이루어내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기적이 가득한 삶을 살아 왔습니다. 소년 시절 박사는 한국전쟁 발발을 겪고 위험한 적진을 빠져나와 살아남았지만, 고작 만 14 살에 혼자가 되어 음식과 피난처를 찾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하시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책을 내려 주셨습니다. 삶의 흐름과 그 활동을 알려지지 않은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 여행자로 비유한다면,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갈 때마다 문이 여러 개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여행은 출생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 사이 길을 따라 내 인생의 장을 표시하는 많은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은 내가 도착한 시점에는 벌써 잠겨 있거나 빗장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아직도 열려 있는 문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점은 많은 문에 아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문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무엇이 나올지 모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위대한 건축가가 설계한 마스터 플랜이 실현된 뒤에야 알 수 있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아야만 문에 걸린 표지를 볼 수 있었었습니다.” 그리스도 대학 어바인!, 지금은 콩코디아 대학 어바인이라는 표지 말입니다.

문 박사는 그 문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선교사가 되어 돌아가라” 같은 표지가 적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스터 플랜은 박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먼저 박사는 미국에 남아 공부하였습니다. 캔자스 윈필드의 세인트 존스 대학에서 신학 준학사 학위를 획득하였고, 인디애나 포트 웨인의 콩코디아 시니어 대학에서 사회학 학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콩코디아 신학대학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이어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 박사”는 아니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종교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비로소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1975년 루터 교회의 미주니 시노드는 미국 서부 지역에 새로운 기독교 대학을 설립할 임무를 지닌 인물을 소수 선발하였는데, 그 중에 문 박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행 선교사’라는 문이 단혀 있어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보니 축복이 모습을 감춘 것이었습니다. 콩코디아 대학에서 저는 엄청난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철저하게 조사하였지만 적합한 지역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바인 시의 최고 계획자인 어바인 컴퍼니는 조사팀에게 문 박사가 제안한 ‘바위가 몇 개 있는 불모의 언덕’을 대학 부지로 추천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부지는 사립 대학으로는 최적의 장소임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대학 설립을 돕는 문 박사의 일생의 업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획하고 알아내야 했습니다.” 문 박사는 말합니다. “뒤돌아보면 그 시점에 인생을 통해 대학 경영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문 박사는 대학 화장실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사항을 신경썼습니다. 전례없이 빠른 시간인 5년 안에 학교는 기적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서부 학교 및 대학 협회의 정식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문 박사는 계속하여 콩코디아의 학장에 취임하였고, 학교 커리큘럼과 교육정책을 관장하였으며, 심리학과 사회학을 가르쳤습니다.

콩코디아의 미래 계획 - “적응과 개선”

문 박사는 어바인의 설립자들이 교육에 한 헌신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설립자들의 현명한 계획에 따르면 우수한 K-12 교육시설과, 공립대학인 UCI, 커뮤니티 칼리지인 어바인 밸리 칼리지, 사립대학인 콩코디아를 포함한 우수한 고등교육 기회를 3가지 제공함으로써 네 가지 기초 교육기관이 어바인 시에 설립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초기부터 어바인시의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은 신성한 신탁이자 어바인시의 계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 박사의 말에 따르면 콩코디아 대학은 여전히 젊고 활기칩니다. “대학은 활기 넘치고 활력이 가득합니다! 콩코디아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인 캘리포니아 대학 어바인만큼이나 빨리 정식 인가를 받고,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남부 캘리포니아의 훌륭한 고등교육 기관으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으로 인해 성장과 발전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지난날 만들어진 대학의 마스터 플랜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구성요소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적응 및 개선”은 대학의 현재 마스터 플랜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새로운 주제입니다. 마스터 플랜은 25년 전 어바인 시가 처음 승인하였고 최근 업데이트는 2005년 이루어졌습니다. 플랜의 목적은 어바인 시가 제한을 둔 전체 대학의 넓이와 기숙사 인원을 엄격히 유지하면서도 미래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www.cui.edu/Adapt&Improve.

문 박사는 마스터 플랜 개정을 열성적으로 후원합니다. “대학 마스터 플랜을 섬세하게 개정하여 대규모 변경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심미적 사항을 고려하고 교통혼잡을 일으키지 않도록 합니다. 콩코디아는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캠퍼스로 거듭나고자 하며, 배움을 위한 학생의 요구를 보다 훌륭히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의 필요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문 박사는 콩코디아의 이웃 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육의 가치를 높이 존중하는 이웃 학교들이 있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적응 및 개선’이라는 과제에 집중하여 이웃 학교들이 콩코디아가 이웃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웃 학교들이 콩코디아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고 느껴주기를 바랍니다. 이웃 학교들의 입지 정체성은 콩코디아의 입지 정체성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콩코디아는 이웃 학교들의 대학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는 이웃 학교들이 캠퍼스가 제공하는 혜택을 포함해 캠퍼스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기를 바라며 우리의 미래 계획을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어바인의 명문 사립대학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콩코디아는 마스터 플랜을 ‘적응 및 개선’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얻고자 합니다.

www.cui.edu/Adapt&Improve 에 로그인하여 지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훌륭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문 박사가 요청합니다.

사이드바: 문 패밀리 기부금 펀드

콩코디아 대학의 유학생을 위한 문상익 목사 겸 박사의 애정은 문 패밀리 기부금 펀드와 유학생 환대 기금, 자매학교 유학생 장학금 보충기금에 담겨 있습니다.

“아내 샤론과 저는 새로 도착한 유학생을 공항에서 만나 국제 호스트와 함께 캠퍼스에서 첫 식사를 대접하고, 열렬히 환영하여 콩코디아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되는 편안한 환경이며 배려심 가득한 사회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도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문 박사의 말이다.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 고등교육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금 펀드는 장학금을 제공하여 학생이 “콩코디아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라는 표시가 붙은 “삶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